

뷰폴리에서 광주 전경 감상

'자율건축' 오늘부터 시민에 개방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의 광주폴리뷰폴리 '자율건축'이 2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의 광주폴리뷰폴리 '자율건축'이 20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 설치된 '뷰폴리+설치작품 자율건축'에는 독일 미디어아트 그룹인 리얼리티즈 유나이티드의 팀 에틀러&안 에틀러와 한국의 건축가 문훈이 참여했다.

6층의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 들어서서 건물 엘리베이터와 뷰폴리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작

품이 설치된 옥상에 오를 수 있다. 별도 출입문과 비상계단을 통해서도 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동절기에 맞춰 평일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개방된다.

뷰폴리+설치작품 '자율건축'은 '강렬한 마젠타와 옐로우의 스트라이프로 뒤덮인 계단과 기둥이 회전하고 색이 변하는 33개의 트리비전으로 구성됐다. 직접 트리비전을 회전시키면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시내 전경 감상이

가능하다. 뒤쪽 방향에서는 전망대를 통해 무등산과 마추할 수 있다.

지난 7월 완공된 뷰폴리+설치작품 '자율건축'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안전 진단에 따라 보강공사 후 작품 설치를 마쳤다. 작품 완공 이후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은 광주영상복합문화관과 시 문화진흥과, 문화산업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와 운영방안을 공유하는 등 논의를 거쳐 이번 작품 개방을 준비해왔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관람객을

위해 별도 인력 배치 및 광주폴리 인포센터 운영을 통해 작품관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6층에 마련된 광주폴리 인포센터에서 광주폴리 I·II·III 총 30개 작품이 담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다. 광주폴리 배너와 리플릿을 통해 광주폴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대통령상 수상) 시상식에서 전시되었던 광주폴리III 사진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연수 기자



◀광주 아트투어 버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광주비엔날레, 대인예술시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거점과 광주의 몽마르뜨라 불리는 양림동을 방문하는 코스로 운영된다.

광주 문화예술 골고루 만끽

가을여행주간 예향 광주 아트투어 버스 운행

가을여행주간 기간에만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체험상품이 나왔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가

을여행주간(10월21일~11월5일)에 맞추어 전국 4권역(광주, 경기, 충남, 제주)의 다채로운 가을여행아트투어 버스를 운행한다. 가을여행주간

기간에만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이벤트 상품으로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 아트투어버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거점으로 광주비엔날레, 대인예술시장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거점과 광주의 몽마르뜨라 불리는 양림동을 방문하는 코스다.

지역 명소 및 문화공간 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 광주만의 특화된 문화

예술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행사 신청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광주행 아트버스는 오는 21일과 28일 2차례 운행된다. 참가비용은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fall.visitkorea.or.kr/night/art1.do>) 참조.

문의 062-223-6050.

/이연수 기자



(41) 배뱅이굿

가을이 되면...

봄에 뿌린 씨를 거두는 가을, 분주해진다. 농부는 아니지만 나는 봄과 가을에 몸도 마음도 무척 바쁘다. 방송국은 봄과 가을에 개편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개편이라는 것에 무엇인가 변화를 줘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전달하고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지식을 얻어 전달할 수 있을지의 고민의 흔적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햇살이 온순하게 내리고 바람 속에 차가운 온기가 실려 오는 이 가을, 이은관 명창이 생각이 난다. 꽤 오래전 낙엽이 지는 가을 그 때도 국악방송은 개편을 하게 되었고 명인명창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이 신설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첫 편을 개편 전 사전 제작을 해야 하였다.

이은관 명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던 나는 아흔을 훌쩍 넘긴 이 분을 모시고 그분의 추억의 장소 여기를 다니며 촬영을 하고 녹음



를 하였다. 녹음만 하면 모르겠으나 영상 촬영까지 하니 같은 모습도 방향을 달리해 가며 반복해 찍어야 했다. 이은관 명창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싫은 표정하지 않고 시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셨다. 젊은 날부터 방송을 많이 하셔서인지 방송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고 어떤 자세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고 방송제작에 감각적으로 임하셨다. 처음 그분의 댁을 방문했을 때 집 앞 계단에 앉아 손톱을 깎고 계신 모습을 보고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았는데 댁으로 들어가니 이은관 명창의 젊은 날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잘 생긴 영화배우의 사진 같다. 남들은 다 잊었어도 화려했던 그리고 호기로운 이은관 명창의 젊은 날을 그 사진은 기억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분을 모시고 욕심을 냈던 방송장이 나는 그분의 댁을 출발해 서울 종로의 국악로를 거쳐 임진각으로 향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방송 촬영을 하시는 것에만 만족했던지 고령임을 잊었던 것이었다. 시장하시다고 조심스럽게 의사표현을 하였고 임진각으로 가는 어느 음식점에 들러

식사를 하는데 이은관 명창 손가락을 든 손이 바들바들... 마음이 아팠다. 다시 임진각으로 출발한 우리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바람을 적은 리본을 가지 못할 그 길 끝에 걸머 또 한 장면을 찍고 이야기를 담았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젊은 날 소리를 하겠다고 집을 나왔고 남쪽으로 내려와 평생 소리를 했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알 수는 없지만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찾으려 했던 소리인생을 찾아 평생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았다. 요즘도 대중가수에게 대표 노래만 하나 있어도 오래 기억되는데 이은관 명창은 "배뱅이굿"으로 대표되는 분이다. "배뱅이굿"은 어렵게 얻은 딸아이 배뱅이가 처녀가 되었을 때 집안에 들어온 상좌 중에게 마음을 뺏겨 상사병으로 세상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배뱅이를 위해 부모가 굿을 해주는 내용의

노래이다. 이 굿에 가짜 무당이 꾀를 내어 진짜 무당인양 하며 돈을 가지고 떠나가는데 그래도 가짜 무당으로 배뱅이와 안타까운 이별을 했던 그 부모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다는 것에 나는 '배뱅이 굿'이 감성적으로 마음이 가는 노래이다. "왔구나 왔소이다 배뱅이가 왔소이다" 곧 눈물이 왈칵 쏟아질 듯 노래하는 이은관 명창. 이제는 노래로만 남았지만 노래는 삶을 담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다. 임진각에서 방송제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래간만에 나왔네. 좋았어, 여행은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그나마 방송제작 때문에 나왔는데도 좋았구나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이은관 명창은 그 후 몇 달 뒤 돌아가셨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그 노랫소리와 명창의 모습이 가을바람과 함께 불어온다.

/김은하 광주국악방송국장

 www.gugakfm.co.kr	광주 99.3MHz
	전주 95.3MHz
	남원 95.9MHz
	진도목포해남 94.7MHz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